

이라크 여성들의 생활



이 동 은
한국외국어대 중동연구소 연구교수

지난 1월 현지조사를 위해 이라크를 1주일간 방문했다. 현지조사 및 연구를 하기에 1주일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더욱이 이라크 국영 여행사 안 내원과 문화성 소속 직원이 밀착 동행하며, 외국인에게 개방이 허용된 지역만 안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단의 조사 범위는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같이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있었지만, 어렵사리 얻은 이라크 입국 허가에 만족하며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각오 및 경직된 주변 분위기로 인한 긴장 탓인지 1주일엔 그리 짧게 느껴지지 않았다. 지금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이라크에서의 순간들이 떠오른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 들어서자 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사담 후세인의 초상화와 동상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전쟁 임박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생활은 일상적으로 보였다. 시내 중심부의 한 재래시장 모퉁이에는, 전통복장의 일부인 쿠피야(Kufiya : 남성용 머리수건)를 두른 남성들이 손에 망치나 삽 등의 연장을 들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아마도 인력시장인 듯 했다. 한편 여성들은 대부분 히잡(Hijab : 여성들의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너울 또는 장옷)을 쓰고 있었는데, 중년 이상의 여성들은 검은 색의 긴 히잡을 쓰고 다녔고 젊은 여성들은 스카프 형태의 짧은 히잡을 쓰고 다녔다. 이라크는 주변의 여타 아랍국에 비해 전통복장 착용율이 높았다. 그러한 현상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첫째는 이라크인들이 아랍·이슬람 전통에 강한 긍지를 갖고 그것을 잘 보존해오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전쟁 및 서구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외부 세계와 오랫동안 단절되어 서구문명의 유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결혼지참금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신랑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혼 및 사별에 대비해서 여성을 위한 재산상의 예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흐르는 결혼 당시에 완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일부를 나중에 지불할 수도 있다. 마흐르가 없는 결혼은 무효로 간주된다.

1) 여성

이라크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적극적이고 활달했다. 대학 교정에서 만난 여대생들은 우리 일행에게 먼저 눈빛을 보내며 반가움을 표시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 나온 엄마들은 나에게 자기 아이의 사진을 찍어달라며 앞다투어 부탁을 했고, 남부의 나자프 시에서 만난 젊은 여성들은 동방에서 온 낯선 여성을 보고 탄성을 지르며 악수를 청했고, 바빌론 유적지에 견학 나온 여대생들은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청했다. 물론 내가 여성이기에 그들이 허물없이 친근감을 표현했을 것이다. 나는 히잡을 두른 여성들이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히잡은 아랍·이슬람세계 여성에게 있어서 결코 억압의 도구나 상징이 아님을 확신했다. 그것은 전통의상일 뿐이지, 여성들을 가두어 두고 외부세계와 단절시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했다.

2) 가정

다른 아랍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라크에서도 '가정'은 사회의 신성한 기본 단위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가족을 돌보는 '어머니'의 위치를 거룩하게 여긴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분명한데, 남편은 가족 부양의 경제적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보필과 자녀교육 등 가사의 의무가 있다. 특히 어머니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과거의 전통을 잘 보존하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 점은 아랍·이슬람 사회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현상을 뒷받침해준다.

이라크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의 위치는 소중한 것이기에, 서로의 가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보면 누구든

지 쉽게 친해진다. 그리고 일단 친해지면 서로를 '형제' 또는 '자매'로 호칭한다.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상대방을 '형제' 또는 '자매'의 혈연관계로 간주하는 것은 상당한 친근감의 표시이다.

이라크인들은 매사에 보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특히 남녀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다. 이것은 이슬람교 윤리에 따른 것으로, 여성은 가족이 아닌 남성에게 목과 가슴언저리, 팔 등의 신체 부위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그리하여 외출 시 히잡을 착용하며 외부 남성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한다. 이러한 측면은 가정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어느 가정에 남성 손님이 방문했을 경우, 집안 여성들은 안채에서 나오지 않으며, 남성 손님 역시 안채에 들어갈 수 없다. 이와같은 모습은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일반적이다.

가족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이라크인들 덕분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이라크에 있는 동안 한국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다. 호텔 안내데스크에 여러 차례 국제전화를 신청했지만 전화연결이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웬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다. 그날 밤엔 이생각 저생각을 하느라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여행안내원에게 가서 한국에 전화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용무냐고 물었고, 나는 집에서 아이가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나와 함께 시내에 있는 국제전화센터로 가서 전화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른 용무였다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가 엄마의 전화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가족간의 정과 '어머니'의 위치를 존

중하는 이라크인들의 정서를 읽을 수 있었다.

3) 결혼

이라크인들은 이슬람교 가치관에 따라 결혼을 종교적 의무인 동시에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독신생활은 허용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피임과 낙태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혼을 두 남녀 간의 애정의 결실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의 표시이며 사회적 유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라크인들은 상대방을 신뢰하거나 상대방과 가까워지고 싶을 때 '결혼'과 관련된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손아랫 사람이 마음에 들면 "사위(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말하며, 동년배끼리 가까워지면 "사돈합시다"라고 말하며, 손윗 사람과 친하고 싶을 때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그런 분위기 탓에 나는 이라크에 잠시 머무는 동안 사윗감 및 사돈감 후보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결혼의 형태는 아직까지 중매혼이 일반적이다. 특히 남성들은 부계의 사촌 여동생을 우선적인 배우자감으로 택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6촌, 8촌, 그리고 모계의 4촌, 6촌...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감을 찾는다. 한 예로 사담 후세인 대통령도 외사촌 여동생과 결혼을 했다.

결혼 성립 요건 중 하나로서, 신랑이 신부에게 지불하는 '마흐르'(Mahr:결혼지참금)가 있다. 그 액수는 신랑·신부 양측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현금, 귀금속, 가축 등의 동산이나 부동산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하다. 결혼지참금의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신랑의 경제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혼 및 사별에 대비해서



예배를 마치고 시장에 들른 쉬아파 이슬람교도 여성들

여성을 위한 재산상의 예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흐르는 결혼 당시에 완불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에 따라서는 그 일부를 나중에 지불할 수도 있다. 마흐르가 없는 결혼은 무효로 간주된다.

아랍·이슬람 세계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일부다처제를 빼놓을 수 없다. 고대부터 아랍을 비롯한 중동지역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남성들이 전사(戰死)하는 관계로 남녀간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 경제력이 없는 전쟁미망인들과 고아들이 다수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사회안정의 한 방편으로 일부다처제가 자연 발생했다. 남성들은 무제한의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났다. 이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한 남성이 결혼할 수 있는 아내의 수를 네 명까지 제한시켰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도 두었다. 첫째는 한번에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는 남성이 새로운 아내를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셋째는 남성이 여러 아내들을 몰심양면에서 공평하게 대우해야 되는 것이고, 넷째는 아내들을 한 집에서 거주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제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다처제는 상대적 강자인 남성들에 의해 악용되어온 측면이 많았다. 이라크에서 역시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데 엄격한 제한조건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아내를 얻

이라크는 현재까지 복고사상과 수구사상이 지배적인 나라이며, 매사에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선호하고, 흥미 위주의 문학 작품보다는 교훈적 문학 작품을 선호하고, 옷차림에 있어서도 캐주얼보다는 정장을 선호한다.

을 때 반드시 기존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남성이 기존 아내의 동의 없이 새 아내를 맞을 경우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단, 기존 아내가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거나 몸이 아픈 경우는 예외이다.

4) 교육

이라크의 학제는 한국과 같이 6·3·3·4제이며 자국민(自國人)에게는 각급학교 교육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은 의무교육인데,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모는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한 영향으로 아이들이 모두 정확한 표준아랍어를 구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아랍국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아이들은 외국 손님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따듯이 맞았다. 그들은 나에게 “어디서 아랍어를 배웠느냐?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냐? 이라크에서 언제까지 머무를 것이냐?” 등을 물었다. 내가 “이라크에서 1주일간 머물 것이다” 라고 대답하자 그들은 아쉬움을 나타내며 “여기서 계속 살면 안되느냐?” 고 되물었다. 그들의 표정에선 외국인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타인에게 쉽게 정을 주는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라크의 여성, 가정, 결혼, 그리고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주로 얘기했다. 이라크인들은 전반적으로 외국인에게 친절하고 관대했다. 이것은 아랍의 전통적인 관습이며 미덕이기도 하다. 아랍인들에게 “당신은 관대하다” 라고 말하면 최고의 찬사로 받아들인다. 우리 일행은 이라크인들의 친절과 환대를 가까이서도 느낄 수 있었고 멀리서도 느낄 수 있었다. 가까운 예로 우리를 안내했던 여행안내원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우리가 책이나 참고자료를 살 때 혹시 비싸게 살까 봐 일일이 따라다니며 챙겼고, 우리가 많은 인파속을 걷거나 길을 횡단할 때 역시 강력한 보호정신을 발휘했다. 아랍인들은 예로부터 자기 집을 방문했던 손님이 떠나면 그 손님의 안전을 위해 먼길까지 따라나가서 배웅하는 관습이 있다. 만일 그 손님에게 위협한 상황이 닥치면 목숨을 걸고 그를 보호하는 용기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여행안내원을 보면서 아랍인의 전통적 기질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실 우리는 그 안내원을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여겼었다. 우리의 행동을 계속 규제하고 감시하는 태도가 불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보다는 도움을 주었고, 감시보다는 보호를 해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한편 우리는 손님에 대한 이라크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멀리에서 느낀 적이 있었다. 한번은 남부의 쿠파에 있는 한 모스크(이슬람교 사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마침 저녁예배 시간이라서 수백명의 사람들이 마당에서 예배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그 옆을 지나가자 그들은 예배인도자의 인도에는 무관심한 채 우리에게 계속 시선을 모았다. 우리는 너무 미안해서 황급히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이 모습 역시 손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쏟는 전통적 기질의 하나



‘요나 모스크’에 견학한 유치원생들과 학부모들

로 생각되었다.

이라크인들은 전통적인 아랍인의 기질인 관대함, 대담함, 직선적 사고 등을 상당 부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호의적인 상대에게는 친절을 베풀지만 적대적인 상대에게는 가차없는 공격을 한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상대에 대해서는 최상의 찬사를 아끼지 않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엔 극도의 비난을 퍼붓는다. 다분히 감성적이고 다혈질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라크인들은 낙천적이었다. 그들은 전쟁가능성으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말을 하면서도 미국과의 전쟁을 '세계3차대전'이라 일컬으며 웃어넘기는 여유를 보였다. 그들의 여유와 대담함은 특유의 민족적 기질 및 현세와 내세에 똑같은 비중을 두는 이슬람교 사상, 그리고 1980년도 이후 두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던 전쟁을 통해 단련된 체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라크인들은 아랍 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아랍·이슬람 역사상 최고의 황금기(서기 750~1258년)를 구가했던 압바스 제국의 중심부가 이라크였으며, 이슬람교의 많은 예언자들이 이라크에서 태어났다는 점에 큰 긍지를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이라크는 현재까지 복고사상과 수구사상이 지배적인 나라이며, 매사에 보수주의적 관점을 가진 나라이다. 따라서 예의범절을 중시하며, 육체노동보다는 정신노동을 선호하고, 흥미 위주의 문학 작품보다는 교훈적 문학 작품을 선호하고, 옷차림에 있어서도 캐주얼보다는 정장을 선호한다.

이라크인들은 주변의 아랍국 사람들에 비해 솔직하고 직선적이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는 일가족 및 동네 아이들

고 있다. 이라크의 명문 무스탄사리아(Mustansiria) 대학에서는 한국어 과정 개설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향후 한국과 이라크의 교류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다.

현재 이라크의 낙후된 경제 상황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수도 바그다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한송전, 거리를 달리는 낡은 중고차들, 사람들의 남루한 옷차림, 금이 가거나 이가 빠진 식당의 접시들, 공중전화 앞에 길게 늘어선 줄,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어디를 가든 커다란 돈다발을 들고 다녀야 하는 점 등이 그들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라크를 방문하는 동안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회 내부의 모습을 상세히 보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볼 기회가 없었다. 이렇듯 주마간산격으로 돌아보아 아쉬움이 남긴 했지만 그들 사회에 내재된 감정과 사고의 흐름은 짚어볼 수 있었다.

그동안 이라크에 관한 연구자료를 입수하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이라크 연구는 여타 아랍국 연구의 뒤로 미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 되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라크 연구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라크 현지연구 및 문헌연구를 계속할 것을 과제로 삼으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